

## '95 서울 국제 군수 산업전

28일~10월 1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전세계 군수산업의 최신 경향과 방산장비 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 군수산업 전시회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된다. 조선일보사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의 1백30여 업체가 참여, 총 3천여평의 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군수산업전이 다.

그동안 국내에 지면으로만 소개됐던 F-16 전투기를 비롯해 K-1 한국군 주력전차가 실물로 전시되는 등 다채로운 현대 최첨단 무기들이 선보인다.

## 일, F-15전투기 1개부대 해체

일본 방위정책의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방위청은 고성능 F-15 전투기로 무장한 제202 비행대(공기현)를 오는 2004년까지 해체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8월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F-15 전투기부대는 현재의 13개부대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그러나 해체되는 부대의 전투기를 항공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다 언제든지 일선에 복귀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 부대를 없애는 대신 공중급유기와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새로 배치할 예정이어서 실제 전력감축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위청은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97년부터 AWACS를 배치하며 2000년에는 차세대 지원전투기(F-SX)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항공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F-15 전투기 1개부대 해체안은 사실상 군축을 위장 '트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방위계획 대강의 별표(군장비표시)에서 전투기 숫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일, 신형 국산 중거리 유도미사일 개발키로

일본방위청은 육상자위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미사일 호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중거리유도미사일을 개발키로 한 것으로 8월 18일 알려졌다.

방위청의 이같은 방침은 50년대 말 미국으로부터 도입,전국 8개기지에 배치돼 있는 호크 미사일이 노후화된데다 항공기 성능이 향상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오는 2003년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도 방위예산에 국산중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청은 개발비가 1천3백억여원에 달하는 이 신형 미사일의 개발과 관련,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위계획의 대강 수정작업에서 육상자위대 병력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운용과 조종의 간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방위청은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의 미일공동개발과 관련, 조사연구비 4억5천만엔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신아간조준장치 미해병대 헬기에 장치

미국 국방부로부터 전자장치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는 AH-1W형 공격헬리콥터에 장착할 야간조준장치를 미국방부가 뉴햄프셔주 소재 마크스퀴어사에 발주했다.

총 44기가 발주되었는데 3,620만달러로 내년 7월부터 해병대에 인도될 것이라고 한다.

## MD사 창립 75주년 자사 제작기 전시

롱비치에 본거지를 둔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금년으로 창립 75

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사는 롱비치에 있는 산하기업 더글러스 항공기제조회사에서 자사가 제작한 각종항공기의 사진과 실물을 전시하여 많은 관객을 모았다고 동사 대변인이 최근 발표했다.

동사는 일찌기 1924년에 미육군의 세계일주 비행계획에 호응하여 4기를 출전시켰으나 2기는 도중에서 고장으로 주저앉고 2기는 무사히 세계를 일주했었다.

## 새 연습기 시험중 러시아, 2종 개발 판매

러시아의 신형 훈련기인 Mig-AT와 YHK-AEM의 2기종이 곧

초도비행과 아울러 시험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군사항공소식통이 전했다.

Mig-AT형은 스테크마R-20 터보팬 엔진(추력 3,875lb) 2기를 장착하였는데 최대 이륙중량 7,000kg, 최대속도 850km/h로 러시아권 이외의 서방측 판매는 스테크마사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YAK-AEM은 10월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크리모프 터보팬 엔진(추력 4,850lb) 2기를 장착하는데 최대이륙중량 6,200kg, 최대속도 1,000km/h로 서방 각국의 구미에 맞추어 개발한것으로 장차 서방 각국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 훈련기지 제공신청 캐나다 NATO공군에

캐나다 정부는 NATO가맹국 공군이 고등비행훈련을 캐나다에서 하도록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제안에 앞서 NATO가맹 각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의 협력 승인을 받아 놓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등훈련기로는 BAe 호크 100형이 이미 선정되었으며 NATO측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97년에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새로운 야간조준장치를 단 벨 AH-1W 헬리콥터

것이다.

이에대하여 미국은 NATO의 제트기 비행훈련을 미국내의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기지에서 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캐나다와 정면으로 경합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훈련에 참가하는 각국이 자기 비용으로 훈련기를 사도록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는 훈련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 수출형 개발기로 록히드, 미국방성과 협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양사는 F-22형 전투기의 수출용 기종 개발에 대해 미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국제 항공거래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각국이 현재 맥도넬 더글라스사의 F-15기종을 쓰고 있는 각국에 대해 그 후속 기종으로 팔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대해 영국 국방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재취역 순조 SR-71 정찰기

록히드 마틴사는 SR-71 블랙버드 재취역 1호기를 지난 6월

28일 인도한데 이어 2번기, 3번기도 곧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인도될것이라고 한다.

동 SR-71형 고공전략정찰기는 새취역을 위한 비행 검사에서 고도 24,700m에서 0.94~3.3마하의 속력을 내 고속정 정찰기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는데 1976년 동기가 세운 세계기록에는 아직도 약간 모자라는 형편이다.

미공군이 이미 퇴역시킨 정찰기를 다시 꺼내 오는것은 이들 정찰기가 그후 취역한 최신형보다 쓸모가 더 낫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 GPS 조종 성공적 B-2 폭격기 시험에서

신형 스틸스 폭격기인 노드롭 그루먼의 B-2기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행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전지구위치 표적장지) 이용 폭탄투하 시험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미공군이 발표했다.

B-2기는 12,200m의 고공에서 비행중 GPS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로 10초이내에 폭탄을 투하 명중 했다고한다.

### 국제항공우주전략세미나 한국항공우주전략연구원 개최

항공우주전략연구원(원장 김상태)은 9월 27일(수)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항공우주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1세기를 선도할 항공우주산업 및 무기체계의 전략개념을 점검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6개 주제가 발표된다.

#### 발표주제

주제 1 : 보스니아전에서 전자전 현황과 미래 전자전의 전망

(AIR VICE MARSHAL GEORGE BLACK, GEC-MARCONI CO., DEFENSE SYSTEM, UK)

주제 2 : 미래 방공무기체계의 발전전망

(DR. ROBERT M. STEIN, RAYTHON CO, VICE PRESIDENT, ADVANCED SYSTEM, USA)

주제 3 : 미래 항공우주 분야의 군사활동과 전망

(CHARLES PRATELY, GROUP CAPTAIN, UK)

(DR. NICK FERMOR, DIVISIONAL MANAGER, UK)

주제 4 : 미래전투기의 발전전망

(USAF M/GEN(R) JHON.P. SCHOEPPNER, JR. LOCKHEED MARTIN, USA)

주제 5 : 21세기 공군의 발전방향

(이한호 준장, 공군전투발전단장)

주제 6 : 한국 항공산업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강위훈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